

# 공단검진은 공단역에서



(조감도)



**MEDI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대구북구]** ☎ 전화예약 **053)350-9000**

**진료시간**  
평 일 : 08:00~16:30  
토요일 : 08:00~11:30

**1호선 환승 [명덕역] ⇒ 3호선 [공단역]**  
**2호선 환승 [청라언덕역] ⇒ 3호선 [공단역]**  
527, 708, 719, 724, 726, 730, 750,  
200, 250, 251-1, 300, 북구1, 북구4, 칠곡2

# 푸른신문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제1,150호

창간: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달서·달성 지역신문  
www.prsimn.co.kr

성서최고의 휘트니스클럽

**미과 SP LEX**  
MIGWANGSPOLEX

헬스 / 스쿼시 / 골프 / 유도  
최고 시설의 사우나 / 탁구센터

본관, 053)593-9990~7  
신관, 골프장&스크린골프 : 053) 584-0775

헬스 연간회원 댄스·요가·필라테스·스피닝 무료수강!

**사우나 헬스 100% 참숯가마**

24시간 골프 연습장

**휴림원** 300대 주차장 완비!  
대침실 2인 룸구 대박마루 뒷편  
☎ 585-0100

포장이사 전문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효성익스프레스**

항상 우리집을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 635-7824

달서점 654-7824 수성점 794-7824 북구점 355-7824  
논곡점 611-7824 화원점 639-7824 남구점 473-7824

## 지면안내»

지역	>	03~9면	>
고령	>	12면	>
성주	>	13면	>
지역사랑 패너	>	15면	>
종합	>	16~19면	>
기고	>	20~21면	>
교육	>	23~25면	>
문화	>	26~27면	>
건강	>	29면	>
운세·날씨	>	30면	>
퍼즐	>	31면	>

## 12월 22일, 달서구민의 날

대구시 신청사 유치일, 달서구민 의견 반영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60만 달서구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준 대구시 신청사 유치일인 12월 22일을 새로운 달서구민의 날로 정하고 22일 선포식을 가졌다.

달서구민의 날은 출범 당시 14개 행정동, 인구 50만명 돌파일 등의 의미를 담아 10월 14일로 운영해 왔으나, 역사성과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달서구에서는 지난 7월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의 날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3%가 구민의 날이 언제인지 몰랐으며, 대구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달서구 비상의 의미를 담아 구민의 날을 새롭게 지정하자는 의견이 68%였다. 또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된 12월 22일을 달서구민의 날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68%로 나타났다.

달서구의회에서는 구민 의견을 존중해 구민의 날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며, 제276회 제2차 정례회(12. 14.)에서 구민의 날 변경(12. 22.)을 최종 의결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는 단순히 행정청사의 이전이 아니라 대구의 문화와 역사, 가치의 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달서구가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달서구민의 애郷심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구민의 날 변경은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달서구민의 대화합 및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

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민의 날 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로 진행됐으며, 동영상 제작 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태훈 구청장은 “달서구민의 단합된 힘으로 신청사를 유치했다. 구민의 날 변경을 통해 60만 달서구민의 화합과 단결의 상징인 신청사 유치과정을 귀감으로 삼고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점식 기자

## 달서구,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우수’

달서구(구청장 이태훈)와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달서구와 달성군은 각가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재정인센티브로 확보했다. 달서구의 ‘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안전지킴이 ‘열로카펫’ 설치와 달성군의 안심꽃길 조성 등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각각 우수사례로 뽑혔다.

달서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룬 성과다.

달서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을 2억 2천만 원 증액한 14억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모바일 홍보 확대,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사이버 예산아카데미 지원, 청소년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우수 지자체 선정 ‘농촌 날리 마을가꾸기’

단체 온라인 화상교육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달성군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주민주도 분권형 자치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꾸준히 확대 운영해왔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행안부 평가에서는 주민 참여예산 규모 확대와 전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투표,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달성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이 제안한 93건의 사업을 선정해 1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16일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22곳(종합분야 14개, 특별상 분야 4개)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변점식 기자



# GCS CULTURE CENTER 푸른방송 문화센터

WINTER, 2020

## 겨울학기 회원모집

/ **강좌기간** 2020년 12월 1일(화) ~ 2021년 2월 27일(토)  
/ **접수기간** 11월 2일(월) ~ 선착순 마감  
/ **접수문의** 감삼점 053) 565-0877~8  
서재점 053) 624-0500

## New Class 새롭게 만나는 시간! 신규강좌



**프랑스 자수**  
수 10:30~12:00  
100,000원 / 재료비 100,000원  
구리아 대한유류자수협회대표

**3D펜 창의융합지도자**  
금 10:30~12:00  
6회 90,000원 / 재료비 100,000원  
※3D펜, 재료비, 자격증응시료, 자격증비용 포함  
민진아 전문강사

**아프리카 전통악기  
엄지피아노 칼림바**  
목 14:00 ~ 14:50 (소수정예6명)  
120,000원 / 교재비 10,000원  
※악기 상담 후 구입요망  
(첫시간 악기대여 가능)  
왕신애 한국칼림바협회 대구2지사장



**판야팡아 유아체육**  
토 12:00~12:50 (5~7세)  
8회 54,000원 / ※준비물 : 실내용, 물  
체리선생님 전문강사  
※1월, 2월 진행

**판야팡아 음악줄넘기**  
토 13:00~13:50 (6,7세)  
토 14:00~14:50 (8세이상)  
8회 54,000 / ※준비물 : 실내용운동화, 줄넘기  
체리선생님 전문강사  
※1월, 2월 진행

**3D펜 창의융합 주니어반**  
금 16:00~16:50 (7세~초등)  
10회 75,000원 / 재료비 45,000원  
민진아 전문강사

## 달서구, 보건복지부 '2020 복지행정상' 5관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복지행정상'에서 총 5개 부문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5관왕을 달성했다.

달서구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와 장애인정책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 총 5,250만원의 포상금을 획득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민관협력 및 자원연

계 분야에서는 2019년 최우수상에 이어 2020년 대상을 수상해 한 단계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달서사랑365운동을 통한 기부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자원 총량 확대,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복지파트너 및 복지달인 등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을 체계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맞춤형복지팀 설치와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합 창구 운영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한

예방 및 해소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달서웨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공공일자리 적극 발굴·확대, 달서구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공유주방 창업 인큐베이팅 운영 등 일자리 인프라 활성화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주거·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물론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장애인정책 분야는 올해 처음 신설된 평가로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상담을 통한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및 전달체계 강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 밤거리 밝히는 로고젝터 3곳 설치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은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스마트 LED 조명장치, 로고젝터를 달성스포츠포드, 달성국민체육센터, 달성국민체육관 등 3개소에 설치했다.

로고젝터(Logojector)란 LED 조명장치로 각종 이미지를 빛으로 투사해 벽면이나 바다 등 다양한 장소에 경각심 문구 및 이미지를 투영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개념 홍보영상 장치다.

<자료제공: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안전한 도시 '달성'

6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4개 분야 1등급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에서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되어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5일 공개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6개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달성군은 4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에 1등급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해왔는데, 달성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연속 4개 분야 이

상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는데, 이로써 달성군이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받았던 범죄 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2017년에 개소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스마트 보안등 설치 및 무인안심택배사업 등의 범죄 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문오 군수는 "달성군이 대외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

감을 갖고, 군민들이 살기 좋은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등 6개 안전 분야를 각 지역별로 측정해 등급을 매긴 것으로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자체와 비교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광고는 해야하는데  
비용이 걱정 되신다고요?

여기 푸른신문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문과 케이블방송 광고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 + 푸른신문 광고의 장점

**유효성** \_ 지면 크기, 위치 선택이 자유롭고 가격대 다양 **적시성** \_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내용으로 광고 가능  
**정보성** \_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 **키랄로그성** \_ 쇼핑안내 및 행사 안내  
**우수한 독자층** \_ 가정, 직장에서 회람 가능, 광고 열독률 높음.

광고문의 053-572-6000





## 달서구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

대구·경북 유일, 재정인센티브 7천만 원 확보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 결과,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0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하고 공유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13명 및 일반 국민 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개방자원 확대실적, ▲정

부24 이관자료 정비실적, ▲홍보실적,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달서구는 개방자원 확대 기여도 및 정부24 이관자료 정비율 등 개방자원 확대 기여도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특히,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공공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개방자원 등록, 공유주차장, 공공 야외 결혼식장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기존 공유서비스들을 공유누리 플랫폼에 등록해 한 번에 검색·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개방자원 정보에 대한 주민접근성 향상을 위해 6월 홈페이지에 통합예약관리시스템

(공유누리 링크)를 구축하고, 도담도담 교구대여 사업과 사파리 하우스 파티용품 대여사업을 신규로 시행해 지역공유 문화를 촉진하는 소규모 공유축진 사업 추진 등에서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자원 개방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내 회의실, 체육관, 주차장 등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었으며, 공공 개방자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 도심에서 만나는 ‘시골장터’

보통 5일장, 7일장 하면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이나 시골장터를 많이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도심에서도 시골장터 같은 시장이 열리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이곡동에 위치한 월요일장이다.

월요일장이란 명칭은 매주 월요일에만 시장을 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곡동 국민연금 네거리 근처 성서동서화성타운 아파트 옆 도로변에 열리는 시장으로, 사람과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길이 약 350m 가량 되는 긴 도로이다. 광상시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드문드문 지나가는 한적한 도로이지만 매주 월요일만 되면 분주해 지기 시작한다.

차량진입을 일절 통제하고 도로변 양 옆으로 파라솔과 그늘막을 친 가판대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며 한적한 도로변이 맞아 샴을 정도로 영락없는 시골 장터로 순식간에 변해버린다.

시장 분위기는 어느 시골장터 같은 시골벽적한 활기찬 분위기지만 도로변 양 옆으로 가지런히 정열해 있는 가판대들로 인해 어수선 하거나 복잡하지는 않다.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는 구입하기 힘든 싱싱한 산지 야채와 과일은 물론 생선, 견과물, 의류,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팔지 않는 것이 없다. 또한 시골장터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인 순대, 떡볶이, 어묵탕은 기본으



로 뱅귀기, 족발, 바로 튀겨서 주는 옛날통닭까지 먹거리도 다양해 보기만 해도 배가 절로 불러온다. 야채나 과일 같이 직접 재배하거나 농사지은 것들, 순두부나 콩비지 같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집이나 신선도 걱정없이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 무엇보다 시골장터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가 있으며 시중

# 애니박스 디지털 182번

# 채널J 디지털 123번

## 청춘의 푸른 꿈 ‘결혼으로 펼쳐자’

달서구, 찾아가는 결혼공감 아카데미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5일 사회 초년생이 될 송현여자고등학교 3학년 3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혼공감 아카데미 ‘청춘의 푸른 꿈 결혼으로 펼쳐자’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으며, 진학과 취업 등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새로운 선택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인생길의 큰 관문 중 하나인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배우자는 내가 믿고 나를 믿어주는 가장 친한 친구로서 서로의 노력을 통해 꿈꿔오던 행복을 완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달서구는 저출산 사회문제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세대별 인



송현여고 3학년 학생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모습

혼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달서구는 저출산 사회문제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세대별 인

식개선, 민·관협력, 사회환경 조성 등에 매진하면서 전국 최초의 결혼친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올바른 결혼관을 함양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푸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 ‘아동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달서구, 아동친화모니터단 아동정책제안서 전달

제1기 달서구 아동친화모니터단과 굿네이버스 대구남부지부(지부장 안정하)는 15일 아동친화모니터단원들이 제안하고 선정한 정책제안서를 달서구에 전달했다.

아동정책제안서는 지난 7월 11일 달서구 아동친화모니터단 워크숍에서 아동참여기구 제안사업으로 제안·선정되었으며, 정책 제안 내용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운동기구 설치’였다.

또한,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8월부터 13일까지 달서구 아동친화모니터단원들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권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권리로 ‘보호권’과 ‘참여권’을 뽑았으며, 아동권리를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으로는 ‘보호자(부모)’와 ‘정치인(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달서구 아동친화모니터단 정책제안서 전달식

고 답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참여하고 싶은 것으로는 ‘아동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및 건축 시 아동들의 의견 수렴’이라고 대답해, 아동들이 아동관련 정책 추진 시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달식에는 2020년 달서구 아동친화유공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1년 동안 아동친화모니터단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학생 3명에게 수여했다.

달서구는 ‘놀이터 같은 도시, 친구 같은 달서구’ 슬로건 아래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친화모니터단·옴부즈퍼슨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생태놀이터 조성, 아동보호팀 신설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한해

##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교육센터

■ 관리·사무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건준오토모빌 053-249-0000	단순 경리 사무원	무관	월 180만 원 이상 (상여 10%)
(주)동신메스피 053-59-9194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원	전문대졸 이상	월 200만 원 이상 (상여 100%)
(주)유원 053-614-3945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무관	시급 8720원
신화785 053-586-3363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무관	월 250만 원 이상 (상여 20.0%)
주식회사 에스에스이티 053-583-3511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무관	연 3200~3400만 원

■ 기술 기능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떡매는 사람들 070-4635-2002	떡 제조원(한국 포함)	중졸 이상	시급 9000원 이상
엔레스발란스컨설팅 053-584-8164	가타 식품가공기계 설치·정비원	고졸 이상	연 3,500만 원
기연창립 053-59-7877	머신센터(MCT) 조직원	무관	월 200만 원 이상
(주)로알컴공 053-583-8851	수질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전문대졸 이상	연 3,000~3,400만 원
(주)코스모텍 053-59-5155	자동차 부품 조립·검사원	무관	월 2,406,720원
(주)테림프라인 053-589-1902	금형원	무관	연 3,060만 원 이상
(주)스누론 053-59-7525	CNC 선반 조직원 (NC 선반 조직원)	무관	연 2,400만 원
에스오도너스 053-710-8664	금속 공작기계 조직원	무관	월 300만 원 이상 (상여 100%)
주식회사 태진기업 053-59-6096	금속 공작기계 조직원	무관	연 2,600만 원 이상

■ 단순 생산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이안테크 053-719-0659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주)스테이플 053-623-5558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9,050~13,575원
(주)동신메스피 053-59-9194	제조 단순 종사원	고졸 이상	월 200만 원 이상 (상여 50%)
디스모먼트 053-587-2355	섬유·의복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중앙포장(주) 053-584-0118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 영업(판매), 운전배송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천지비이티 053-889-2746	온라인 판매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주)세원창립 053-581-8891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월 220만 원
울림 로지스틱스(주) 053-567-8279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월 250만 원 이상
우왕이엔테크 053-721-7580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연 2,400만 원 이상
(주)태양화스너 053-582-2297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고졸 이상	월 200~220만 원 (상여 10%)
(주)철심(주) 053-581-4152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시급 8900원 이상

※ 문의: 대구서부교육센터 053)605-6508 www.work.go.kr/daegu.edu

동안 적극 활동해 준 아동친화모니터단원에게 감사하며, 구의 정책이 되고, 미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 달서구, 병무청장상 수상

### ‘제7회 사회복무대상’ 전국 우수 복무관리기관 선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병무청 주관 ‘제7회 사회복무대상’에서 지역 최초로 전국 우수 복무관리 기관으로 선정되어 병무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대상’은 매년 중앙 병무청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관리 기관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7회째다.

달서구에는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3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데 대구시 8개 구·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다. 다수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빈틈없는 복무관리를 바탕으로

매년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관리 상등급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왔다. 달서구에서는 일반행정, 환경보호·감시지원,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가족과 같은 복무지도를 통하여 복무부실을 ZERO화 달성하고 힐링영화제 및 특별휴가 권장 실시, 복무부적응 등 고충해결을 위한 복무고충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신장과 우수한 복무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구민을 위해 봉사

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지역의 청년들이 병역을 잘 완수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 달성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대구시 행정서비스현장 평가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2020년 대구시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실태 평가는 이행기준, 이행실천, 교육·홍보, 역량 분야로 구성된 이행실적 4개 분야 항목으로 평가했다.

달성군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한 ‘2020년 행정서비스현장 운영계획’을 수립해 행정서비스현장을 제·개정하였으며, 직원교육·홍보·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서비스현장 우수실천 사례로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운영, 전입·출생 축하카드 발송,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가꾸기,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내지도 발간, 진



로·진학 실무협의회 구성, 행복나눔 안부묻기, 장난감 도서관 운영, 활주호형 LED 횡단보도 설치,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현장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김문오 군수는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 겨울철 대실역 ‘별빛폭포’ 운영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달구벌대로 대실역 벽천폭포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폭포 상단부에 사슴, 토끼, 원형구, 선물상자 등을 설치했고, 겨울철 가동이 중단된 폭포를 대신해 벽면에 스노우폴 조명을 설치하여 물이 떨어지는 듯한 별빛폭포를 연출했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이다.

〈자료제공·달성군청〉



## 달성군 2년 연속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선정

### 설화명곡역 일원 ‘디자인 간판 거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서 달성군 화원읍 국도 5호선 주변 ‘설화명곡역 주변 간판개선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설화명곡역 주변 간판개선사업’은 달성군 관문 지역인 화원C 진입로에서 천내천까지 1.4km, 건물 61개 동 및 112여 업소가 사업 구간에 해당

이 되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 주민의 고충을 조

금이나마 떨어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7월 대상지 주민에게 사업계획안 내 후 주민 동의서를 받고 8월 행정안전부 1차 서류 평가 및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예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됐고, 11월 주민 참여 국민 디자인단 회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12월 최종 선정됐다.

달성군은 내년 상반기에 간판 디자인 설계를 하고, 하반

기에는 업소별 특성과 지역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 일원을 ‘디자인 간판 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오 군수는 “사업 대상지인 설화명곡역 주변의 노후하고 난립한 간판을 아름답게 디자인된 간판으로 개선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달성 이미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2010년부터 10개



구간에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해 타 지역 방문객이 드르는 달성군의 주요관문도로를 정

비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달성군청〉

## 스마트 그늘막이 크리스마스트리로

### 달성군, 주요교차로 3곳 시범 설치

달성군 주요 교차로에 있는 여름철 스마트 그늘막이 크리스마스트리로 변신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달성군은 겨울철에 닫혀있는 스마트 그늘막을 활용해 크리스마스 장식과 LED 문구가 들어간 트리를 설치했

다고 16일 밝혔다.

트리에 설치한 LED 조명 ‘따뜻한 달성, 꽃피는 달성’은 군정을 홍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스마트 그늘막 트리는 교통량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고려해 3개소(화원읍사무소, 옥포 대성메르헨아파트 앞, 대실역 2번 출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트리 조명은 일몰 후 점등되어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달성군청〉

## ‘따옴따옴’ 따오기 보러 우포늪으로 오세요~

늘어진 왕버들 사이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여름새벽도 아름답지만 우포늪은 겨울철 철새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워낙 유명한 곳이지만 이번엔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어 소개한다. 우포늪 안에 따오기 복원센터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야생의 따오기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다. 우포늪을 자주 방문하지만 야생상태의 따오기를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오기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되었지만 중국에서 한 쌍을 데려와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수백 마리로 복원한 후 작년에 80마리를 방사했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사라진지 40년 만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40마리씩 두 차례에 걸쳐 방사한 것이다. 복원센터 근처 탐방로를 걷고 있는데 머리 위로 서너 마리의 커다란 새가 날아가기에 유심히 봤더니 머리가 붉은 색인데다 굽어진 부리 모양이 엉악없는 따오기였다. 따오기가 방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기자는 흥분해서 같이 간 일행에게 분명히 생김새가 따오기인데 어떻게 야생에 있을 수 있냐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부랴부랴 검색해 보니 작년에 80마리를 방사했고 복원센터 근처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했다.

“따옴따옴 따오기 늪에서 울고~♪” 신이 나서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동요 ‘오빠생각’을 패러디해서 부르니 “순옥순옥 수노기 옆에서 울제~♪”라며 기자의 이름으로 라인가지 맞추가며 일행이 놀린다. 기자처럼 야생의 따오기를 직접 만나는 행운이 없더라도 복원센터에 사전예약을 하면 따오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우포늪은 우포 외에도 목포, 사지포, 쪽지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면적이 워낙 방대해서 코스를 잘못 선택하면 철새는 구경도 못하고 고생만 할 수 있다. 기자가 좋아하는 사지포 제방은 규모는 작지만 다른 곳에 비해 철새들이 많고(사지포에 먹이가 많는지 늘 개체수가 많다) 철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망원경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서순옥 객원기자



###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가족 ‘내 고장 알기 탐방’을 위한 협약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호연)는 15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순환)과 달성군 거주 다문화가족의 지역관광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에서는 매년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사업으로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별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관광상품권 전달로 대체됐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달성군시설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다문화가족 총 80가정(320명)에게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광상품권 이용권은 호텔아일랜드와 낙동강레포츠벨리 이용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다문화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달성군 관내 관광지를 체험하며 달성군에 거주하는 것에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TREND

#PLUS

#CHANNEL

SANDBOX+

SANDBOX+

SANDBOX+

SANDBOX+

SANDBOX PLUS

SSS

연중무휴 트렌드 맛집

SANDBOX+

**달서·달성**



**달서구체육회**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전달  
사단법인 대구시달서구체육회(회장 윤영호)는 18일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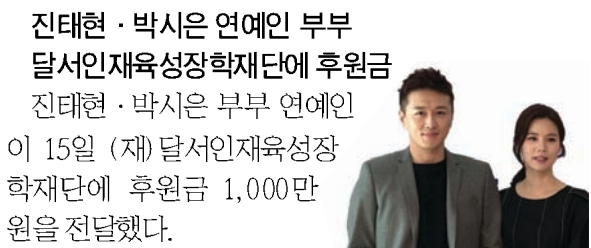
**대구도시철도 기관사들 '사랑의 후원 물품' 전달**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환)는 16일 경산시 북부동 주민센터를 찾아 쌀, 김치, 라면 등 1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전달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허세호)는 16일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달서구 통우연합회, 사랑의 라면 전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통우연합회(회장 김성미)는 16일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다사읍 박곡리 이상용 씨 단배추 기부**  
다사읍 박곡리 이상용 씨는 13일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단배추) 1만 5천 포기를 기부했다.

**현풍읍 기부천사 후원 성금 기탁**

현풍읍에 거주하고 있는 박재일 씨는 15일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후원 성금 22만 2,220원을 기탁했다.



**대구가톨릭교봉사단, 백미 등 3천만 원 상당 기탁**  
(사)대구가톨릭교봉사단(이사장 이상민)은 18일 달성군청을 방문하여 백미(20kg) 300포, 김치(5kg) 300개, 연탄 3,300장 등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고령·성주**



**이웃돕기 사랑의 성금, 성품 기탁**

고령로타리클럽(회장 양기섭)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매일영농조합(대표 윤재도)에서 500만 원, 인터켄코리아(대표 이주천)에서 1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다산면 산호침구(대표 박종순)에서 이불 30채, 사문진 스크린골프에서 이불 50채를 기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고령군운영위원회(회장 이대원)는 14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으며 15일에는 성산면 소재 직물 원단 제조업체인 대성산업(대표 김상수) 100만 원, 대성지오텍(대표 제갈은화)에서도 100만 원을 기탁했다. 또, 개진면 소재 합성섬유 제조업체인 대윤오토모티브(대표 조성철)에서 여성용품 100박스(320만 원 상당), 린글로벌테크(대표 박승철)에서 손소독제 5000개(2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운수면 최영수 명예면장 성금 500만 원 기탁**

고령군 운수면 명예면장 최영수(주식회사 크레텍책임 대표이사)는 17일 5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중화리 출향인사 김중호 씨, 성금 100만 원**  
고령군 대가야읍 중화리 출향인사 김중호 씨는 14일 대가야읍사무소(읍장 김진수)를 방문해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고령인터넷뉴스 독자편집위원회, 용수공업 성금**  
고령인터넷뉴스 독자편집위원회(위원장 김영희)는 14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주)용수공업(대표 신원재)에서도 100만 원을 기탁했다.

**대구경북주물협동조합, 성금 200만 원 기탁**

대구경북주물협동조합(이사장 김정태)은 16일 다산면에 사랑의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쌍림면 이춘언 씨 사랑의 쌀 기탁**

고령군 쌍림면 용2리에 거주하는 이춘언 씨가 18일 옥미 22포/20kg(130만 원 상당)를 쌍림면사무소에 기탁했다.

**덕곡면 새마을회 '사랑의 성금' 기탁**

고령군 덕곡면 새마을회(회장 최석훈, 부녀회장 진묘택)는 18일 덕곡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쌍림면, 사랑의 성금 기탁**

고령군 쌍림면 이장협의회에서는 17일 면사무소를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같은 날 前 쌍림면 노인회 총무 황선계 씨도 면사무소를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성산면, 연이은 후원 릴레이**

성산면 소재 대야기업(대표 강문희)은 14일 성산면사무소를 방문,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또 성산면 적십자협의회(회장 이상희) 일동은 17일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고령초 71회 동기회, 사랑의 성금**

고령초등학교 71회 동기회 회원 일동(회장 정한철)은 15일 대가야읍사무소(읍장 김진수)를 방문해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성주의료기 손삼수 씨 헌물기탁**

성주의료기 대표 손삼수 씨는 17일 성주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희망2021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손소독제 100개와 KF94마스크 5,000장(시가 6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성주군여성예비군 사랑의 이불 전달**

성주군여성예비군(회장 김경분)은 17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이불 40채(320만 원상당)를 전달했다.

**성주효병원장례식장 성금 200만 원 기탁**

성주효병원장례식장(대표 김대승)은 17일 성주군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성주읍이장상록회 성금 100만 원 기탁**

성주읍이장상록회는 17일 성주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희망2021 나눔캠페인’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성주광고 박용진 대표 성금**

성주광고 대표 박용진 씨는 16일 성주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성주군 개나리회 성금 100만 원 기탁**

성주군 개나리회(회장 김이숙)에서는 17일 성주군을 방문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jtbc2



재 미 를 담 다

jtbc2 채널번호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채널



#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감동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참여방법: 사연과 관련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푸른방송제작팀 E-메일 gcsup@gcs.cakr / YellowID@gcsch4 ☎ 053-551-2002

▶ 방송시간  
매일 ⇒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 종합편성채널 (중편)

###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섀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코드가 맞지않는 강적들이 뿔났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 ▶ JTBC 토요일 밤 9:00



인생을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사소하지만 궁금해 견딜 수 없는 질문들. 그럴 땐!!! '질문하다!' 아는 형님이 답할 것이다!  
나이도, 출신도, 성격도, 외모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추측하고! 실험하고! 전해주는 '아는 형님'만의 인생 해답!

## 케이블 채널



###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여신강림이란?  
어른들은 말한다. 열여덟... 존재 자체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나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존재만으로는 절대 빛날 수 없다. 열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교라는 작은 공간에서는 더더욱.

못생겼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한 소녀, 주경이 있다. 주경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메이 크업이란 마법! 을 통해 여신으로 변신한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지?

유쾌하고 따뜻한 가슴 떨리고, 때론 가슴 아픈 이 이야기를 통해 자존감 제로였던 이 소녀가 자신의 'before' 와 'after'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열평하는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랑 앞에서도 주춤하지 않고 당당한 자존감 충만한 소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VOD)

###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 소리도없이

악의 없이, 계획에 없던 유괴범이 되다!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근면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시체수술을 하며 살아가는 '태인'과 '창복'. 어느 날 단골이었던 범죄 조직의 실장 '용석'에게 부탁을 받고 유괴된 11살 아이 '초희'를 억지로 떠맡게 된다.



#### 담보

"담보가 무슨 뜻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아이에게 인생을 담보 잡힌 두석과 중배. 빛 때문에 아저씨들에게 맡겨진 담보 승이. 두석, 중배, 승이 세 사람은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돈 받으러 갔다가 인생의 보물을 만났다!



시청방법 ▶ 메뉴 → VOD다시보기 → 영화 → 극장동시상영권

문의전화 053.551-2000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고령군, ‘국도비공모사업’ 역대 최대 성과

670억 원 확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완성발판 마련

고령군(군수 박용환)이 2020년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총 41건, 국·도비 670억 원을 포함해 1,069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여 2019년(국·도비 336억 원) 대비 2배 많은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고령군은 올해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4차례 역량강화 워크숍과 특강을 실시했으며, 매년 정부공모사업의 대상사업과 선정방식 등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특히 박용환 군수는 국·도

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는 등 노력했고 전 직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해 줄 것을 주문해 왔다.

먼저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군 민체육관 건립사업 130억 원(국도비 49억 원), 다산건강 가족센터 조성사업 121억 원(국도비 53억 원), 농촌 생활력플러스사업 70억 원(국비 49억 원), 쌍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 40억 원(국비 28억 원), 오사리 새뜰마을사업

20억 원(국도비 16.6억 원)을 확보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대가야 휴먼화유수사업-낙동강수변 관광시설 조성 126억 원(국도비 82억 원), 대가야역 사문화클러스터 2차사업-동서양악기연구소 건립 등 89억 원(국도비 58억 원), 대가야대중 및 종각 건립 15억 원(도비 9.7억 원), 문화재 야행과 DMO육성지원, 특화 콘텐츠 개발 등에 10억 원(국도비 5.7억 원), 김면장군 유적전시관 리모델링 2억(국도비 1.3억 원), 향교서원 및 종각집 활용사업에 2억 원(국도비 1억

원) 등이다.

재해예방 및 농업분야에서는 고령농협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10억 원(국도비 6.2억 원), 2021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18억 원(국도비 10억 원),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8.7억 원(국도비 3.4억 원),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2.7억 원(국도비 1.8억 원), 고방지구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160억 원(국도비 104억 원),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 90억 원(국비 90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80억 원(52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3억 원

(국도비 8억 원), 다목적TOT연구개발지원사업 2.2억 원(국비 2.2억 원) 등이 있다. 박용환 군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민과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군의 재정확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등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해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I ♥ 대가야 고령’을 완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 ‘2020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고령군 최우수상

고령군(군수 박용환)은 16일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0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면서 부상으로 7,500만 원을 받았다.

에너지대상은 △에너지분야 교육·홍보 △에너지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에너지분야 시책 발굴

△에너지절약 점검·단속 △주민 참여 및 등 정책달성 기여도 등 총 8개 항목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했다.

고령군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비롯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 에너지 효율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경우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9억 원(2020년 30억, 2021년 29억)을 투입해 태양광 483개소, 태양열 82개소, 지열 59개



소 등 총 624개소(2020년 290개소)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고 있다. 사업 효과로 3KW의 태양광을 설치한 주택인 경우 매월 5~6만 원의

전기요금에 절약되어 고령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 ‘최우수’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는 ‘우수’

고령군(군수 박용환)은 ‘2020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기업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추진실적,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시책참여,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5개 분야를 종합평가했다.

올해 고령군은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131개 업체에 713억, 중소기업 운전자금에는 154개 기업에 442억을 융자추진했다. 특히 고령군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가 확대 지원, 노후도로 포장, 기업간관 정비 등 중소기업애로사항을 해소에 노력했다. 또한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초기 가동(착공)을 위해 준공 인가전 사용허가를 했으며, 개진일반산업단지와 개진농공단지 공장건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임주대상 업종에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고령사랑 상품권 역대 최대액 발행 및 할인행사 △대구경북

최초 고령사랑상품권 모바일제로페이 및 카드형 상품권 출시 △소상공인 경제회복 및 점포재개장 지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전통사업 활성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나 19 대응사업 실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고령군청〉

## 성주군, 2020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20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는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사업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활동, 새마을지도

자 사기진작, 새마을분야 사업추진 등 5개 분야 11개 항목 21개 지표에 대한 1차 실적 평가 후, 2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주군은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며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별고를 통돌이 이동 빨래방 운영, 버스승강장 화단 조성 등 정비, 숨은 자원 모으기 등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들을 펼쳐 나갔으며, 특히 새마을회 방역기동대 결성, 면마스크 제작 참여, 착한 임대사업 동참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환 군수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운동 단체인 새마을을 보여준 새마을회의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성주군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 보행약자를 위한 성주군 ‘가야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수륜면 백운리의 가야산야생화식물원과 가야산역사산화공원을 잇는 ‘가야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완료했다.

‘장애가 없는 길’을 뜻하는 무장애나눔길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8%), 계단과 턱을 제거하여 휠체어와 유모차도 쉽게 이용가능하다.

가야산무장애나눔길은 2020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에 공모선정되어 목재데크길 250m, 황토포장길 50m 등 길이 300여m에 폭



1.8m로 조성됐다.

가야산 낙엽송 군락지를 거닐며 험터에서 산림욕도 즐길 수 있으며 무장애나눔길 주변에 벌개미취 11만여본을 식재하여 여름이면 우리 야생화의 아름다움도 만끽할 수 있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사회와 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신치유와 정서안정을 통한 녹색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 성주군, 군립 청사도서관 재개관

성주군은 군립 청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재개관했다. 청사도서관 리모델링은 2019년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으며, 이용자의 기호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쾌적한 독서학습 공간으로 거의 신축 수준으로 재탄생했다.

1층 자료실은 만여 권의 도서와 어린이 및 거실형 독서물, 카페형 독서공간, 장애인 및 노령층 이용자를 위한 독서보조기기 코너가 있으며, 2

층 열람실은 테이블형 및 좌식형 스타디움, 집중형(간막이형) 열람실, 카페형 및 오픈형 열람공간을 갖추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으로 좌석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 군 이장상록회장에 여상훈 선출

성주군 이장상록회는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부터 3년간 성주군 이장상록회를 이끌어 갈 회장으로 여상훈 금수면 이장상록회장을 선출했다.

여상훈 신임 군 상록회장은

금수면 광산리 출신으로 2010년에 광산리 이장에, 2012년에는 금수면 이장상록회장에 임명되어 헌신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했다. 다량의 벼 생산과 벼 육묘장을 운영하며 성주군 농업 발전에 큰 공헌

을 한 성실한 농부이기도 하다.

여상훈 신임 군 상록회장은 “성주군 전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온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주미래 100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료제공·성주군청〉



## 성주군 최우수기관상 수상

2020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교)는 17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0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최우수기관상 수상과 상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아 성주 농업인의 위상을 높였다.

최우수기관상의 영예를 안은 농업기술센터는 성주형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참외 상품종 개발, 참외보완 틈새작물 육성, 농기계임대사업 남부본소 개소 및 농기계 자동제척장 설치, 지역 농·특산물 가공·창원지원, 농업인교육장 시설개선 및 귀농귀촌정보센터 구축 등 많은 분야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한 성과를 보였다.

서성교 소장은 “내년에는 성주참외의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성주형 스마트팜, 참외 고설베드 스마트팜, 소경온 피트모스 배치 활용 양액재배,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운영 등으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 성주군치매안심센터 2020년 치매극복 우수기관

성주군은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에서 실시한 ‘2020년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치매극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치매극복관리사업 우수사례 평가는 경상북도 25개 치매안심센터(41개 사례)를 대상으로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인식개선, 치매예방사업 등 각 8개 분야를 평가하며, 성주군이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성주군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치매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치매예방과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해 치매극복 선도단체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사례는 ‘치매극복선도단체를 활용한 지역맞춤 치매예방사업’이 선정됐다. 〈자료제공·성주군청〉

## 정해광 고령군새마을회장 ‘대통령표창’

고령군새마을회장 정해광 씨(개진면 옥산리)가 새마을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정해광 고령군새마을회장은 2006년 옥산리새마을지도자를 처음으로 새마을활동을 시작해 2015년부터 새마을회장을 맡으면서 관내 60여 가구의 독거노인 및 생계곤란 어르신들께 반찬제공은 물론 안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또, 농약병의 잔류 농약이 하천변과 논두렁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폐농약병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150여개 리에 폐농약병 수집함과 음·면별 자원재활용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힘썼다.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1만평 규모의 사과농장을 1,280여 명의 새마을가족들과 공동으로 운영, 8,3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려 고령군새마을회 재정 자립에 기여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 대구시 ‘으뜸숲길’ 안내책자 제작

팔공산에서 비슬산까지 걷기 좋은 숲길 한눈에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짐에 따라 등산로, 둘레길 등의 정보가 담긴 ‘걷기 좋은 대구 으뜸숲길’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한다.

책자는 팔공산, 앞산, 비슬산의 등산로는 물론 대구 둘레길 등 지역 내 걷기 좋은 숲길에 대한 위치, 거

리, 소요시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책자에는 14가지 종류로 총 500여km에 이르는 숲길 노선이 수록되었으며, 휴대하기 좋은 크기(14.5×20.5cm)로 5,000부를 제작, 주요 관광안내소, 구·군 민원실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책자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대구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숲길 주변의 관광명소, 문화재 등의 정보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으뜸숲길 안내책자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 속에서 치유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주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환경순찰 5년 연속 최우수

달서구, 대구시 ‘살피소’ 운영 평가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대구시 주관 ‘살피소’ 운영실태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대구시에서는 산하기관 및 8개 구·군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신속히 처리하는 살피소의 운영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문제점은 개선하기 위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달서구는 지난 10월까지 6만 5,357건의 구정통보 제보와 2,718건의 환경순찰을 실

시하여 공공시설물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2016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청렴감사실에서는 구정통보제의 활성화 시책으로 매월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달

서 환경살피의 날’을 운영하고 모바일 활용으로 직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달서구 직원들의 살피소 운영 적극 참여, 기관장의 높은 관심으로 각종 시설물, 방치 생활쓰레기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속·정확

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청결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불편사항 및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제거하는 등 현장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도록 하겠다”며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 달서구, 대구 최초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청장상 수상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대구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단체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 표창’은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분야 업무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곳이 선정됐으며, 특히 대구시 8개 구·군 중 최초로 표창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달서구는 그동안 문화가 경쟁력을 인지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에 역량을 집중하여 ‘선사시대로 탐방’, ‘선사체험 돌돌담협대’, ‘선사문화체험축제’ 등의 활용사업을 통해 주민과 공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연말 새로 신실한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



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문화유산 정책을 통해 문화도시 달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 우리지역 공공개방자원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보다 자연스런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야외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야외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는 목적지 선택부터 금전적인 비용 등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유누리 서비스를 이용해 고민을 해결해 보자.

공유누리 서비스는 지난 3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오픈한 사이트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공간, 주차장, 물품 등의 공공자원을 지역주민들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 이용하는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이다.

공유누리 서비스를 통해 캠핑장, 축구장, 체육시설은 물

론 주차 걱정 없는 공영주차장 길 안내 지도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하다. 회의실, 강의실, 강당, 주차장, 실험장비, 물품 등 10만 여개의 공공자원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서든 등록된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공유누리 사이트(www.eshare.go.kr)에 접속 회원가입) 검색) 예약 순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원 검색방법은 원하는 시·도 / 시·군·구의 지역을 설정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자원을 검색하면 해당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 할 수 있다.

확인된 자원은 예약하기 기능을 통해 예약 가능한 날짜를 선택한 다음 예약 신청 후 지정 날짜에 맞춰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공유누리 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상담센터(070-5224-0712)로 하면



된다. 공유누리 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맞는 우리지역 공공개방자원을 찾아 적극 활용에 도움을 바란다. 김재훈 객원기자

## 대구시 상수도본부, 민원 만족도 3년 연속 상승

민원 서비스 이용 시민 872명 대상, 시민 만족도 수준 측정 결과 평균 민원 만족도 점수 84.4점, 전년대비 0.7점 ↑

대구시 상수도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상수도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고 시민의 소리를 행정서비스에 반영하고자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 시민 87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

한만족도는 전년 대비 0.7점 상승한 84.4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평가됐다.

\* 만족도 척도 : 80점 이상(매우 만족 수준), 60~79점(약간 만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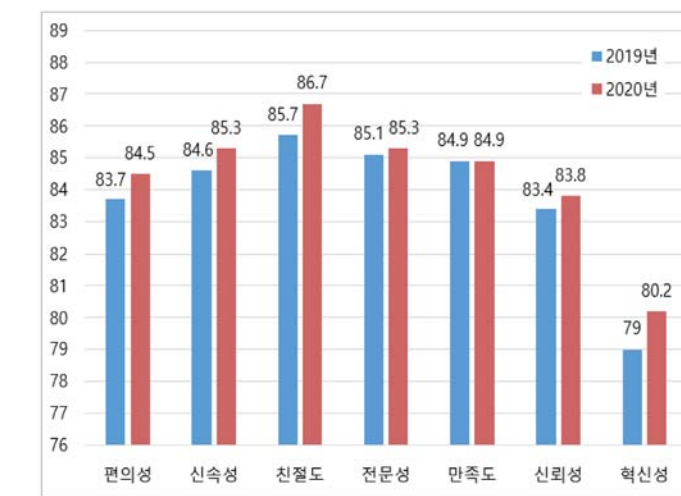
상수도 민원 만족도 조사는 방문민원·전화·홈페이지로 △편의성 △신속성 △친절성 △전문성 △체감만족도 △신뢰성 △혁신성 등 7개 평가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응답자 중 남성은 463명(53%), 여성은 409명(47%)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4.9%, 30대

17%, 40대 25.7%, 50대 26.4%, 60대 이상 26%가 참여했다.

지난해 대비 전체 항목의 만족도가 동일하거나 소폭 상승했고, 그 중 ‘직원의 친절도’는 전년 대비 1점 오른 8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아울러 ‘혁신성’과 ‘편의성’이 전년 대비 각각 1.2점, 0.8점의 상승폭을 보이며 각각 80.2점, 86.7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항목 간 점수를 비교하면 친절도>신속성=전문성>민원처리 만족도>편

♣ ‘19년, ‘20년 만족도 조사 항목별 점수 비교



의성>신뢰성>혁신성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개선의견으로는 더욱 철저한 정수처리와 수질검사 강화, 보다 간편한 ARS 연결, 상수도 홍보, 정확한 고지서 배부 등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해마다 대구시 상수도 민원행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상승한 것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헌

장 및 시에스(CS) 교육 시행,

찾아가는 수도물 안심확인제,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및

누수탐사 등 물 복지 실현 확대, 수도물 시민 네트워크 운

영, 차세대 물관리시스템 도입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

수도 행정환경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더 나은 민원행정부

를 펼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달성군·위메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매전 특별 프로모션

달성군(군수 김문오)과 ㈜위메프는 소셜커머스 위메프 내 달성군 전용관인 ‘달성군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전’의 매출 증대를 위해 기존의 할인율을 높이는 등의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전에는 총 9개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점해 있으며, 달성군을 대표하는 먹거리·생활용품 등이 PC·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 구병원, 직원 단체헌혈

구병원(원장 구자일)은 22일 코로나19로 혈액보유량이 급감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직원 단체헌혈 행사를 가졌다.

<자료제공:구병원>

HD LIVE 방송

푸른방송 **뿌로로TV** 월정액

첫달 무료+경품추첨

TV 애니메이션부터 다양한 콘텐츠까지 무제한으로 골라 볼 수 있는 푸른방송 <뿌로로TV 월정액>의 론칭을 기념하여 신규 가입 고객 모~두에게 첫달 무료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행운 가득한 산타 선물이 도착했어요!

기간 12월 1일 ~ 12월 31일

경품 첫달 무료 + 경품추첨 (랜덤증정)

1. 2021년 뿌로로 달력 + 뿌로로 울동 사운드북  
2. 2021년 뿌로로 달력 + 티요 저금통

\*뿌로로TV월정액 서비스는 푸른방송의 디지털케이블방송 상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지세한 사항은 푸른방송 홈페이지(www.gcs.co.kr)를 참고하세요.

KakaoTalk 푸른방송 www.gcs.co.kr 가입상담문의 053)551-2000



## 중국 네티즌이 반한 대구의 매력!

누적 조회 수 천만 회 이상, ‘근대로의 타임슬립 여행’ 즐겨

국내 거주 중국인 인플루언서 8개 팀이 개인 SNS 채널(샤오홍슈, 도우인, 콰이쇼우, 웨이보 등)에 올린 대구관광 영상 콘텐츠가 12월 17일 기준, 누적 조회 수 1,293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관광국로는 중국 잠재관광객 대상 대구관광의 매력을 온택트(On-tact)로 알리기 위해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내 거주 중국인 인플루언서(중국 내 팔로워 평균 65만 이상)들을 초청해 투어를 진행하고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들은 대구약령

시와 레트로(Retro)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향촌동, 교동 일대를 둘러보고 한방의료체험, 근대문화체험 등 이색체험을 진행했으며, 인플루언서 각자의 색깔을 담은 영상콘텐츠가 12월 7일부터 중국 현지 유력 SNS 채널에 게재됐다.게재된 콘텐츠는 게재 일주일 만에 누적 조회 수 1천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구를 처음 방문한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구 근대문화의 뿌리가 되는 향촌동 배경의 근대문화체험과 지난 8월 개관한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의 한방의료체험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투어에 참가한 인플루

언서들은 “같은 한국임에도 대구만의 특색을 잘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중국 네티즌들로부터도 기존 한국 여행에서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이디 ‘Jeinly’를 사용하는 중국 네티즌은 ‘레트로 컨셉의 대구관광이 너무 멋지다’라고 극찬했고, 아이디 ‘Susania’의 네티즌은 “대구

는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이 영상을 보니 꼭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제갈진수 대구시 관광과장은 “코로나 종식 후 중국 잠재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대구만이 가진 매력을 알리기 위해 복고 트렌드에 맞는 근대문화체험과 대구약령시의 한방체험을 테마로

선정했고, 이를 인플루언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빅데이터가 대구 미래 관광정책 이끈다

빅데이터 분석 실증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정확한 관광객 수 예측 통한 맞춤형 관광정책 개발 기대

대구시와 대구빅데이터 활용센터는 17일 오전 소프트웨어 융합테크비즈니스센터(DNEX)에서 ‘관광 및 생활인구 분석 실증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관광 및 생활인구분석 실증사업’은 올해 6월부터 데이터 수집·가공,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축을 진행했으며, 내년 초부터 대구시와 구·군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관광분석서비스는 통신데이터, 카드매출데이터 등을 활용해 관광지 별 관광객 수 및 소비패턴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으며, 과학적 관광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적별·관광명소별·시간대별 관광행태 및 소비특성 분석을 통해 타겟팅 관광지 추천 및 관광상품 개

발에 이용되거나, 이동 패턴을 감안한 교통편의 및 주변 지역 관광정보(숙박, 맛집 등)의 적절한 제공으로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생활인구분석서비스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지역의 주거1, 직장2, 방문인구3 등을 알기 쉽게 볼 수 있어 새로운 행정수요와 맞춤형 서비스 발굴 등 대구시 정

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1)주거인구 (야간체류인구): 00시~06시 사이, 같은 행정동에 50% 이상 체류  
2)직장인구 (주간체류인구): 09시~18시 사이, 같은 행정동에 30% 이상 체류  
3)방문인구: 주거, 직장인구를 제외한 순수 방문인구

대구시에서는 시와 구·군 공무원들이 이번 사업 결과물을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사례집 배포, 교육, 컨설

팅 등을 별도 추진해 사업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내년에 구축되는 한국관광공사 플랫폼과 연계해 관광지별 혼잡도, 부정이슈 사전알람(바가지, 여행안전 이슈 등) 등의 여행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카드 이용실적, 통신데이터 등 사용자 데이터 분석으로 대구의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맞춤형 코스 추천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해 행정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2020 대구시정 베스트 10

# 1위는 준비된 대구소방, 확진자 6,632명 이송

올 한해 대구시를 가장 빛낸 ‘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 10’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 결과, 소방안전본부의 ‘준비된 대구소방, 코로나19 다수확진자 이송 대응(구급차, 지구 8바퀴를 달려 확진자 6,632명 이송)’ 시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2일간 대구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던 시기에 현장활동 인원 11,657명, 장비 17,406점의 동원으로 총이송환자 6,632명, 총 이동거리 319,914km라는 성과를 이뤄낸 대구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 결과다.

대구시의 올해 ‘대구시정 베스트 10’은 부서별 신청사업 48건에 대해 성과평가위원회, 대구경북연구원,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온라인·길거

리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시민투표 결과를 최종점수에 70%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우수시책이 선정되도록 했다.

2위는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방역정책 추진으로 대구의 위상을 높인 ‘코로나19 K-방역 선도 도시, 대구!’가 선정됐다. 시민참여형 방역정책 및 새로운 방식의 선별진료소 설치, 신속하고 선제적인 진단검사 시행, 모범적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대구시민의 참여와 헌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3위는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가 코로나19 치료체계를 바꾼 ‘D-방역의 주역! 세계가 주목한 대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선정됐다.

대구시정 베스트 10 선정 시민투표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구

### ♣2020년 대구시정 베스트 10

순위	시책	명	소관부서
1	준비된 대구소방, 코로나19 다수확진자 이송 대응(구급차, 지구 8바퀴를 달려 확진자 6,632명 이송)		소방안전본부
2	코로나19 K-방역 선도 도시, 대구!		강령병관리과
3	D-방역의 주역! 세계가 주목한 대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인사혁신과
4	소상공인 돕고! 지역경제 살리는! 대구행복페이 3천억원 조기 소진 열풍		경제정책과
5	지역경제 회복탄력성 강화와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안전정책관
6	코로나19 방역의 숨은 일꾼, 빅데이터로 위기 대응		데이터통계담당관
7	1조원 규모 정부합동 대규모 프로젝트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대구시 최초 선정		산단진흥과
8	국내 로봇 대기업(현대, LG, 한화, 두산)이 함께하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선정		기계로봇과
9	코로나19 세상이 왜 이래! 오! 대구(DAEGU)청! 희망일자리! 고마워!		일자리노동정책과
10	대구시민이 편이아, 전국 최초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운영		희망복지과

시 홈페이지 토크대구 온라인 투표 문시장 등에서 길거리투표로 실시와 12월 9일과 10일 유동인구가 많했으며 시민 8,778명이 참여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겨울 베란다텃밭의 주인공 ‘시금치’

상추와 썩갠 등 온갖 쌈채소들이 싱싱하던 베란다텃밭의 여름농사가 끝나고 나면 행해진 텃밭에서 혼자 초록을 자랑하는 채소가 있다.

시금치는 저온에서도 잘 발아하고 추울수록 오히려 단맛이 강해져 겨울철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채소이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해가 잘 드는 남향 베란다 조건이면

보통 2달이 걸린다. 기자도 지난 10월 17일 파종을 해서 12월 20일 수확을 했으니 딱 2달이 걸린 셈이다.

너무 촉촉히 뿌리면 나중에 속아내느라 힘들기 때문에 3cm 간격으로 씨앗간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파종하도록 하자. 흙은 원예용 상토를 사용하면 되는데 토양의 PH는 7~8 정도가 알맞다. 베란

다는 아무래도 노지보다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 옷차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옷차림 어린 썩의 뿌리부분을 흙으로 덮어주는걸 복토라고 한다. 복토를 해주면 뿌리내림이 좋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해주도록 하자.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많이 주면 과습이 될 수 있으니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흙뻑 주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통풍이다. 다른 식물 키울 때와 마찬가지로 통풍은 일조량, 급수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낮엔 꼭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어 두도록 하자. 그래야 깍지벌레나 응애 같은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시금치는 키우는 재미도 좋지만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



키우는 재미와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베란다 텃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바깥활동이 어렵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한다면 초록초록하고 영양가도 가득한 시금치 키우는 재미에 빠져보면 어떨까?

사순옥 객원기자

푸른방송 고객의 즐거운

# 가전렌탈시대!



상기 제품의 다양한 가전 보유

CS 푸른방송 CJ HELLO

상담문의 053-551-2000





##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

송은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179@hanmail.net



### 147. 월암동 선돌공원, 대천동 한샘공원

#### 1) 프롤로그

2018년 8월 3일자 푸른신문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브리튼 스톤헨지, 진천동 스톤헨지』 필자는 이 글에서 진천동 입석[사적 제411호]을 세계적인 거석문화재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스톤헨지와 비교해 보았다. 이는 규모나 위상이 아니라 동서양을 불문하고 입석(立石·선돌)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나 의의를 비교해 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고장 달서구는 대구시 8개 구·군 중 선사시대유적이 가장 많이 발굴된 지역이다. 이에 달서구는 ‘선사시대로(路)’라는 지역 대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해 의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선사시대로 탐방코스 중 한 곳이기도 한 대천동 한샘공원과 월암동 선돌공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2) 선사시대로(路)

역사공부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록수단인 문자 유무에 따라 문자 발생 이전을 선사(先史)시대, 이후를 역사(歷史)시대라 한다. 책으로 대표되는 문자의 발전은 인류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만약 인류에게 문자가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과 같은 문명사회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조들은 자신들이 체득한 소중한 삶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후손들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매번 선조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똑같이 되풀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가 생겨나면서부터 이런 비효율적인 노하우 전수방식은 사라졌다. 문자로 인해 인류는 더 이상 노하우 터득을 위해 삶을 매번 ‘처음’으로 리셋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얼마 전 알고 지내던 방송국 PD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고인돌과 선돌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구성과 편집에서 애를 먹었어요. 암만 봐도 그냥 돌덩이일 뿐인데...” 당연하다. 수 천 년 전의 유물인데다 관련 문자나 기록 없이 돌만 덩그러니 있으니 말이다. 선사시대 유물·유적 연구는 삼국·고려·조선과 같은 역사시대 유물·유적과는 접근방법이 다르다. 오직 눈앞에 남아 있는 돌·흙·토기·뿔조각만을 가지고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유추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한 접근법에 훈련된 이들이 바로 고고학전공자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돌이지만 이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 이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3) 선사시대 유적공원, 선돌공원

재개발이 한창인 월암동(月巖洞). 조선시대 때 월배 지역은 지금의 지하철1호선을 기준으로 성서 쪽은 조암방(한때 영암면이라 불린 적도 있

다, 앞산 쪽은 월배방으로 불렸다. 근대에 와서 조암방은 조암면이 되었다가 1957년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월암이 되었다. 월암은 월배와 조암에서 앞 글자를 따온 것. 조암이라는 지명은 본래 이 지역에 있었던 4개의 큰 바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벼단을 쌓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조암(租巖), 낚시를 했다하여 조암(釣巖) 등으로 불렸다.

현재 월암동 431번지 일원에는 선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달서구 대표 문화유산인 선사시대 고인돌·선돌·집자리 등을 주요테마로 한 공원이다. 특별히 이 지역은 2006년 인근 월성동에서 아파트 개발 중 대구 최초로 구석기유적이 발견돼 대구 역사를 5천년에서 무려 2만년으로까지 끌어올린 주역이기도 하다. 현재 이곳 야외전시장에는 상인동·월암동·진천동 등에서 발굴된 고인돌·선돌·집자리 등이 전시되어 있다. 고인돌은 선사시대 권력자의 무덤이며, 선돌들은 선사시대인들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 세운 표식 혹은 종교의식의 대상물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집자리는 선사시대인들의 거주공간이다. 선돌공원은 선사시대 유물·유적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지만 조경이 잘 되어 있어 가족나들이나 산책 코스로도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있다.

#### 4) 선사시대+역사시대 유적공원, 한샘공원

선돌공원 인근 대천동에는 한샘공원이 있다. 한샘공원은 그 느낌이 선돌공원과는 사뭇 다르다. 선돌공원이 고층아파트단지를 피해 외곽에 있다면 한샘공원은 고층아파트단지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이다. 한샘공원 역시 주요 테마는 ‘선사시대로’다. 하지만 필자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다. 선돌공원이 ‘선사시대로’라면 한샘공원은 ‘역사시대로’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은 문자 유무에 달렸다. 선돌공원에 전시된 고인돌·선돌·집자리는 문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물·유적이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돌과 흙만으로 선사시대 문화를 유추하고, 선사시대인들과 소통한다. 하지만 한샘공원은 좀 다르다. 필자가 한샘공원에서 주목하는 것은 선사시대 유물·유적이 아니라, 공원 한 편에 있는 옛 한샘마을을 당시목인 수령 350년 회화나무 두 그루다.

회화나무 앞쪽에는 이곳이 옛 한샘마을터였음을 알리는 ‘한샘(대천동)유허비’가 있다. 지금의 대천동 일대는 이 회화나무와 곁에 있는 팽나무·느티나무 노거수를 제외하고는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400년 내력을 지닌 대천동이 불과 십 수 년 만에 천지개벽, 상전벽해를 한 것. 하지만 대천동의 과거는 선사가 아닌 역사다. 마을의 내력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샘(대천동)유허비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고층아파트 사이 한샘공원 회화나무



스톤헨지를 연상케 하는 선돌공원 야외 전시장

대천동은 그 역사가 약 400년이며 마을 남쪽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큰 샘(한샘)이 있어 한샘 혹은 대천(大泉)이라 불렀다. 한 때 100여 가구에 400여 명이 거주했으나 1970년대 근대화로 마을 위쪽 농토가 공장지대로 집단주거지역으로 변했고, 2005년에는 마을까지 사라져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천마을 유래를 돌에 새겨 마을 수호신 회화나무 아래에 세우니 후세들도 이 터전이 주는 큰 뜻과 조상님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대천동 주민들은 1978년까지 이 회화나무 당산목에서 동제를 지냈으며, ‘9정자 2암’이라 하여 이곳에 아홉 그루의 노거수와 널찍한 바위 2개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회화나무 두 그루, 팽나무 한 그루, 느티나무 한 그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고 없다.

#### 5) 에필로그

상인·진천·유천·대천·월암·월성 일대에서는 1980년대에는 청동기유적이, 2003년 이후부터는 신석기·구석기 유적이 확인됐다. 지리학에서는 이 지역을 ‘월배선상지’라 한다. 선상지(扇狀地)는 산에서부터 시작된 물길이 평지를 만나 흐름이 느려지면서 물과 함께 쓸려온 토사가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펼쳐지면서 쌓인 지형을 말한다. 월배 선상지는 달비골에서 발원한 진천천에 의해 생겨난 지형으로 지금의 상인동 채정마을이 선상지의 시작점, 상인·진천이 중앙부, 유천·대천·월암·월성이 말단부에 해당한다. 시간만 수 천 수 만 년이 흘렀지만 사람 살기 좋은 터는 역시 변함이 없나보다. 빈틈없이 빼곡하게 들어선 이 지역 아파트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 목요단상(木曜斷想)

#### 소크라테스

지난 추석부터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노래 ‘테스형’은 힘든 세상을 한탄하는 듯 하지만 삶의 포기가 아니라 극복을 노래하고 있고 삶을 끌고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은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면서, 도덕적·양심적인 행동, 그리고 실천하는 지식을 강조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그러나 테스형의 노랫말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어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은 평생을 노력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어떤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다.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도 소크라테스는 우리 곁에 와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농담처럼 ‘니 꼬라지를 알아라’는 말을 자주 했다. 현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즉 ‘꼬라지를 알아라’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고, 정성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누군가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더 많은 힘을 가졌을 때 생긴다.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위세를 떨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불행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자신이 잘 나서 그리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고 다른 사람만 닦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교수신문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새해는 부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해가 되면 좋겠다.

변점식 기자

#### 국민연금 Q&A

**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명의 은행통장(예좌번호 제시로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제시로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 길을 묻고 답하다

#### 배우자 선택

좋은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꼭꼭지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도파민 분비에서 오는 환기가 애당초 불가능하기에 결혼하여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조건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배우자 선택이 가치관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또 다른 차이는 개인의 일방적 선택이 아닌 상대방의 선택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고 만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두 당사자의 원하는 바를 서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 외에도 두 가문의 상호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감성과

이성이 모두 필요하며, 풍작지가 씨위지지 않는다면 결혼으로 골인하기가 애당초 불가능하기에 결혼하여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조건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배우자 선택이 가치관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또 다른 차이는 개인의 일방적 선택이 아닌 상대방의 선택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고 만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두 당사자의 원하는 바를 서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 외에도 두 가문의 상호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감성과

의 첫 단추 꿰기는 상호 어울리는 조건들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상호적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신부감을 원한다면 일단 본인이 최고의 신랑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최고의 신부감이 자신사업가가 아닌 이상 자기보다 조건이 훨씬 못 미치는 신랑을 선택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결혼중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배우자의 구비조건을 키가 커야 하고, 각설탕이 좋아야 하며, 예뻐야 하고, 재산이 많아야 된다고

입력을 했다. 잠시후 컴퓨터에서 답대신에 다음과 같이 해당란에 답하라는 실문지가 나왔다.

- 당신은 키가 큼니까?
- 당신은 체격이 우람합니까?
- 매남에 머리가 좋습니까?
- 재산이 많습니까?

그 남자는 한참을 곰곰이 고민하다가 ‘아니오’라고 입력했다. 컴퓨터에서 나온 답은 “꼴 값하지 마셈!”이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만족해야 가능한 것이 다.



구용 회진영대학교 교수



기쁨 Plus  
**SBS Plus**

다 함께 fun!  
**SBS funE**

함께 만드는 스포츠 세상  
**SBS Sports**

골프의 모든 순간  
**SBS Golf**

의견있는 경제채널  
**SBS CNBC**

Music & More  
**SBS MTV**

Kids First  
**nickelodeon**

**SBS Medianet**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SBS Plus SBS Sports SBS Golf SBS funE SBS CNBC SBS MTV nickelodeon

## 달성교육지원청 2021학년도 일방향 공동 통학구역 확대 시행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은 소규모학교 활성화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주소지 이전 없이도 지정된 소규모학교로 전, 입학할 허용하는 2021학년도에 반송초 및 동곡초 활성화를 위해 '일방향 공동 통학구역'을 확대·시행한다.

달성교육지원청은 2020학년도에 '일방향 공동 통학구역'제도를 시행해 유가초·비슬초에서 현풍초로, 다사초·세천초에서 하빈초로 입(전)

학이 가능하게 했고, 현풍초와 하빈초를 합쳐 약 60여 명의 학생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1학년도부터는 다사초·대실초 통학구역 내 학생들은 동곡초로, 강림초 통학구역 내 학생들은 반송초로 주소지 이전 없이 입(전)학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인근 아파트 건립으로 과밀이 예상되는 다사초 학생들은 동곡초와 하빈초를 선택해 이동이 가능하다.

일방향 공동 통학구역 대상 소규모 학교(현풍초, 하빈초, 동곡초, 반송초)에 입학하려면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뒤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달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dgds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철 교육장은 "일방향 공동 통학구역 제도는 희망자에 한해 적용되며, 작은 학교에는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



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작은 학교의 매력적 교육특화사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성교육지원청)

##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우리 아이가 원래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해가 갈수록 안 읽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데 보면 다 만화책이에요"

주변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면 위와 같은 하소연을 많이 한다. 대개의 아이들은 책을 즐겨 읽는 편이 아니지만 가뭄에 콩 나듯 유독 책을 좋아하고 책 읽기가 취미인 아이들도 더러 있으며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아닌지는 대화를 해보면 금방 드러날 만큼 수준 차이도 크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거의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다. 그렇다면 책 읽기는 왜 중요

할까? 책은 세상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책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느껴보고 미리 알게 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길러진다. 또한 본인과는 다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작가부터 각양각색의 성격을 지닌 등장인물까지 만나면서 세상에는 사람 수만뿐이나 다양한 삶의 모습과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도 가지게 된다.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선 책이 스마트폰만큼이나 재미있다는 것을 경험시켜줘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은 책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 옆에서 습관적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스마트폰이나 TV가 아닌 책을 펼치면서 가정의 문화가 '보는 문화'에서 '읽는 문화'로 전환되는 것이다. 읽는 문화가 일단 정착되면 집안 구석구석에 책을 놓아보자. 손이 닿을만한 곳이면 어디든 놔두면 아이는 부담 없이 읽기를 시작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아이에게 책을 직접 읽어주는 것이다. 영유아기 때 읽어주는 동화책과는 달리 보다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주는 경험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을 싹 틔우는 동시에 책의 내용과 관련한 이야

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나아가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부모는 아이의 반응을 살펴며 읽어줌으로써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읽을 책을 골라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아이가 읽을거리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이 글보다 많거나 나이에 맞지 않은 잡지라도 개의치 않고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나 성향대

로 스스로 고르게 한다면 아이는 흥미롭게 글을 읽게 되고 자연스레 책 읽기도 좋아하게 된다.

산타도 2주 격리에 들어가 선물이 예년보다 늦게 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올 연말에는 가족과 오붓하게 모여앉아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며 무언가를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선물 보따리에는 미리 뺀 새 책을 넣어두고 말이 다. 이원옥 객원기자

TALK, Instagram, YouTube, Facebook icons

푸른방송이 만들어가는 디지털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바로! (053) 551-2000 [www.gcs.co.kr](http://www.gcs.co.kr)

애니맥스 TV최초 방영!

**도티TV**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첫방송

ANIMAX

©SANDBOX NETWORK. All Rights Reserved.



## 대구왕선초등학교, 교육부장관상 수상

2020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L.A.M.P 놀이터 인성교육으로 민주시민의 빛(On)

대구왕선초등학교(교장 한승희)는 ‘2020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에서 ‘L.A.M.P 놀이터에서 민주시민의 빛(On) 밝히기’를 주제로 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는 현장 중심의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구왕선초등학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교수업 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L(인문학), A(예술), M(감성), P(신체

활동) 놀이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녹여내고 지속적으로 실천했다.

특히 예절, 감성, 꿈 찾기로 마음의 빛을 키우고 긍정적 관계 맺기로 소통의 빛을 나누며, 봉사, 나눔으로 민주시민의 빛을 밝히는 인성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지녀야 할 인성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승희 교장은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성교육의 가치와 덕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료제공·왕선초등학교>

## ‘달서구의 옛 이야기’ 출간

학산초 3학년 책쓰기 동아리, ‘석샘이야기’ 등 7권

은책읽기 미래학교인 대구학산초등학교(교장 전구학)는 11일 도서관에서 3학년 책쓰기 동아리의 달서구 옛 이야기책 출간기념식을 개최했다.

학산초 3학년 2반 책쓰기 동아리(지도교사 안효정) 학생들은 사회교과 수업을 통해 우리 고장 달서구의 옛이야기를 조사하고 직접 삽화를 그

려 ‘석샘이야기’, ‘황씨바위 이야기’, ‘갯길샘 이야기’, ‘청룡못 이야기’ 등 총 7권의 책을 출간했다. 이번 출간기념식은 작가와의 만남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책을 낭독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소개하였으며 학생 독자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황씨바

위이야기’를 펴낸 신지유, 이다은, 이윤솔 학생(3-2)은 3명이 함께 책을 만들면서 의견이 다를 때의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각자 의견대로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서 더 좋은 쪽으로 결정하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두 의견을 중

합해서 만들었어요”라고 대답하여 독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독자 김종민 학생(3-1)은 “2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책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 정말 놀라워요. 친구들의 글과 그림이 책으로 출간되니 신기하기도 하고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진행한 3학년 2반 담임 안효정 교사는 “책쓰기 활동을 통해 달서구의 옛이야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 또한 자신

의 이름으로 펴낸 책을 보고 뿌듯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동아리 운영의 보람을 느낀다”라며 출간된 7권의 책을 학산초 도서관의 대출용 도서로 기증하기로 했다.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과의 학습내용으로 학산초 3학년 학생들은 달서구청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동아리 활동 시간을 통해 달서구의 옛 이야기책을 펴내게 되었다. <자료제공·학산초등학교>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도

우리 주변에는 간혹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 만약 내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 학업중단은 학업에서 손을 떼는 것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범죄나 비행 등 각종 문제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비용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보고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폐해가 있는 학업중단을 성급하게 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으로도 인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제도가 바로

‘학업중단 숙려제’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상담이나 진로체험 등의 기회를 부여해 신중한 판단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혼 숙려제와 같은 맥락의 제도이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은 한두 가지 고민이 아니라 심리, 학업, 가족관계 등 다수의 고민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교사 및 교육청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학업

중단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른 다양한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심리적인 불안이 원인이라면 Wee센터와 같은 전문상담기관이나 병원 등과 연계한 심리 상담 치료에 들어가고 가정의 경제적 결핍이 원인이라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복지 지원을 하는 식이다.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학업·진로의 문제라면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진로상담 및 체험을 지원할 수 있다.

숙려제 프로그램의 특징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학생이 로봇이나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교사가 로봇체험관이나 미술관 등에 데리고 가 관련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돕고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겪는 학생에게는 대안 교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등이다.

물론 학업중단 숙려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공부

의 이유를 모른다거나 학교가 재미없다고 말하는 학생,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 등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징후가 보인다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원욱 객원기자

우리 동네 구석구석, 크고 작은 소식들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1**  
우리 동네 푸른방송 CS 푸른방송 551-2000  
재보 및 가입 A/S

## 대구제일여상 공기업 취업신화를 이어간다

신용보증기금에 대구·경북 유일 합격자 배출  
한국감정원의 전국 TOP2 선발 관문 뚫어

금융·통상 분야 특성화고인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이철우)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채용규모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감정원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로써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8년간 연평균 약 11명의 공기업 합격자를 배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채용규모 자체가 줄었을 뿐 아니라, 채용일정이 대부분 하반기로 연기되어 상당수 기업의 채용이 동시 진행되는 등 유난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꿈의 기업에 합격하면서 ‘공기업 취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주택금융공사 합격을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시설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에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제일여상은 공기업 취업이라는 목표에 따라 필수 자격증 취득, 내신관리는 물론 취업특별반 활동을 통한 각종 캠프 및 취업 프로그램 참가 등을 통해 꿈의 기업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꾸준히 취업 역량을 길러왔다. 특히

기업 특성과 개인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도 등 차별화된 취업지원 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꿈꾸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당연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심어준 것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고졸 채용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면접의 기회가 있어도 그 관문을 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 자신의 역량과 인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취업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인영(19·회계금융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허은지(19·회계금융과), 강지영(19·회계금융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박미주(19·회계금융과), 대구시설공단 윤서영(19·회계금융과), 신용보증기금 김재은(19·회계금융과), 한국감정원 김경진(19·회계금융과)

전국 2명 선발의 좁은 관문을 뚫고 한국감정원에 최종합격한 김경진 학생은 “특성화고를 선택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고 공기업 도전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심리적 부담도 많았지만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한결같은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도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감정원의 일원으로 성장하겠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에 비수도권 4명 중 1인으로



왼쪽부터 한국감정원 김경진, 신용보증기금 김재은 학생

최종합격한 김재은 학생은 “1학년 때 졸업생 멘토링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입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되어 기분이 좋다. 입사

후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전문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료제공·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 독서골든벨로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요

화원꽃뜰유치원, 독서골든벨 개최

화원꽃뜰유치원(원장 제정희)은 14~16일까지 독서골든벨 대회를 진행, 유아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유아들은 교실에서 책을 읽은 후 궁금한 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책꽂이

에서 직접 책을 찾아 친구들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등 연습시간을 가졌다. 그 후 14일은 만 5세, 15일은 만 4세, 16일은 만 3세로 나누어 독서골든벨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 타임이 끝날 때마다

20분의 방역과 소독을 거쳐 안전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만 5세 한 유아는 “독서골든벨을 교실에서 또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으며, 학부모들은 “독서골든벨을 통해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

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유익했으며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질문해 많은 공부 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만 4세 교사는 “유아들이 독서골든벨 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니 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놀이를 더 생각해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화원꽃뜰유치원>

**Mplex** 월드와이드무비채널  
세상을담다,고품격다큐멘터리채널  
**Docu one**  
드라마를원한다면  
**DONE**  
KMH



## ‘대구의 문화재 한 자리에서’

대구교육박물관 기획전시 ‘대구문화재 톺아보기’ 지역의 문화재 통해 역사와 문화 이해하기

대구교육박물관(관장 김정학)은 18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지역의 문화재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 ‘대구문화재 톺아보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소재 지정문화재 및 이와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는 크게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공간 ‘기록하다’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읽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기록’과 관련된 문화재를 소개한다.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소장 ‘태을산분정아국주군분야도(대구광역시유형문화재 제66호)’ 등 조선시대 치국을 위한 천문 기록과 역사와 개인의 기록자료, 그리고 비문을 통해 지금은 사라진 대구읍성의 뒷 이야기를 4개의 비를 통해 들려주고자 했다.

두 번째 공간 ‘지키다’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활동한 의병과 승병의 활동을 통해 지역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 싸웠던 사람들에게 대해 알아보고, 전쟁이라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던 선조들의 노력을 함께 살펴본다.

세 번째 공간 ‘잇다’는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알아보는 공간으로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구성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 조각장 김용운 외 5인의 기능장의 작품을 전시하고 연화와 관련된 무형문화재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며 문화재에 생명력을 불어

넣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할 관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고하고자 하였다.

김정학 관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대구라는 공간을 지켜온 문화재를 소개하는 자리이다.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톺아보다란 ‘살살이 톺아 나가면서 살펴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자료제공:대구교육박물관〉

## 대구시립극단 비대면 연극 꾸러미 선물

연극 ‘십이야’, 시민들을 위한 ‘연극학교’ 온라인으로  
TBC와 공동제작 스탠딩 드라마 ‘The Play’ 방송… 공모 당선작 오디오북 제작

대구시립극단(예술감독 정철원)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시민들에게 내년 1월까지 온라인으로 다양한 연극 꾸러미를 선보인다.

최근 제50회 정기공연 셰익스피어 연극 ‘십이야(원제 Twelfth Night)’와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극학교’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또한 뉴노멀 시대를 맞아 TBC와 함께 새롭게 기획한 스탠딩 드라마 ‘The Play’를 새롭게 선보이고 단원창작화곡집을 발간한다.

올해 첫 정기공연 셰익스피어 연극 ‘십이야’ 온라인 공연은 대구문화예술회관 유튜브 및 대구시립극단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29~31일 3일간 시청할 수 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시민들을 위한 ‘연극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 수강생들이 직접 배우가 되어보는 콩트발표회가 사실상 연극학교의 주요 포인트였기에 수강생들에게 상당히 쉽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각 파트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로 무대 뒤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며 아쉬움을 달랜다. 온라인 수업의 영상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강사들이 참여한 대구시립극단 공연 하이라이트 장면을 함께 보여준다.

총 네 강좌로 황웅기(대구문화예술회관 조명감독), 김언영(에리카 메이크업 프로덕션 대표), 서보영(서보영무대 의상 대표), 안희철(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총괄진행 이동학(대구시립극단 트레이너), 구성 강사로 이용희(교육극단 나무데라 대표)가 참여한다. 영상은 21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한 편씩 업로드하며 대구시립극단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된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지난 9월, 10분 희곡 및 사연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97편이 응모됐으며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희곡 4편, 사연 2편이 선정됐다. 당선작은 대구시립극단과 TBC 공동제작으로 스탠딩 드라마 ‘The Play’라는 제목으로 방송되고,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연극 ‘십이야’

제작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실화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희곡은 예술성, 독창성, 대중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당선작은 현수막 비행기(작. 김도영/희곡), 당신의 베를린(작. 조은정/희곡), 자취방 손님은 어머니(작. 최민주/희곡), 깜빡깜빡(작. 서수아/희곡), 거름에서 피어난 사랑(작. 허필은/사연), 친구같은 마스코트(작. 김희아/사연)이다.

당선작은 낭독극과 매체가 만나 새로운 형식으로 탄생한 스탠딩 드라마 ‘The Play’로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는 대구시립극단이 TBC와 손잡

고 새롭게 기획한 프로젝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에서 공연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단원들이 공연이 아닌 또 다른 형식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방식이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송이나 라디오,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10분 희곡과 사연을 단원들이 생동감 있게 들려줄 예정이다. 스탠딩 드라마 ‘The Play’는 TBC에서 총 6회분으로 내년 1월 중 방송될 예정이며 TV와 라디오, 유튜브에 송출된다. 또한 음원은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또한 단원 창작미션의 희곡과 함께 엮여 서적

으로 발간한다. 단원 창작미션은 대구시립극단 단원들이 3~4팀을 구성해 약 10분간의 공연을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이며, 희곡은 기성작품이 아닌 창작 희곡으로 단원들이 직접 쓴다. 단원 창작미션은 단원들에게는 매년 새로운 작품을 직접 쓰고 만드는 창작의 고통이 주어지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원들의 연극적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0분 희곡 및 사연 당선작 중에는 코로나19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와 직접 겪은 사연이 담겨있다.

문의)053-606-6323

〈자료제공:대구시립극단〉

## 2021 예술단체 공연공모

12월 28일~1월 4일 접수, 웃는얼굴아트센터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웃는얼굴아트센터는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정기공연 추진을 위한 ‘예술단체 공연공모’를 시작했다.

‘예술단체 공연공모’는 지역의 우수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웃는얼굴아트센터의 로컬 아

티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매년 시행한 대구·경북지역의 예술단체 공연 공모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정기공연’을 개최해왔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로 2021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건의 공연이 문화가 있는 날 정기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선정된 ‘문화가 있는 날 정기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신청하여 국비지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음악, 국악, 연극, 뮤지컬, 무용 등 장르를 불문하고 2년 이상 공연 활동 경력이 있는 대구·경북 소재 전문공연예술단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접수한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은 “공연 공모에 신청하

는 예술단체의 수준이 나뉘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예술단체 공연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문화재단〉

## 상상 그 이상의 공간 ‘대구지식발전소’ 개소

옛 경북경찰학교 건물, 지역밀착형 공유학습공간으로 재탄생  
다양한 컨셉의 복합 스튜디오 등 9개 공간 갖춰

대구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세대를 넘어 모든 시민이 스스로 배움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열린 지식공유형 혁신공간인 대구지식발전소 개소식을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대구지식발전소는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0억 2천만 원으로 옛 경북지방경찰청 경찰학교 자리에 조성한 지역밀착형 공유학습공간이다. 지난해 지역사회 활동 및 역량 강화 조사연구용역을 통해 공간 구성 및 운영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4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민간단체와 창작자를 위한 공간대여, 시민이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참여

형 커뮤니티 ‘뭐하노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시청 별관 내 위치한 대구지식발전소는 내년 출범 예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사업을 배치해 연중 평생학습을 위한 전문 상담, 학습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 시민주도의 학습커뮤니티를 운영할 지식



셀러를 모집하고 중단없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전문 채널 ‘달구별 1번가’ 학습콘텐츠도 제작된다.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다양한 개념의 복합스튜디오, 강

의실, 회의실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구평생학습포털 ‘학습동’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 및 공휴일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감기예방에 탁월한 ‘생강차’

기자는 몸이 차가운 편이라 생강이 제철인 이맘때면 늘 생강차를 만든다. 생강차를 만들어 꾸준히 생강차로 마신 후로는 추위도 잘 타지 않고 감기도 안 걸린다. 30년 요리 선생에게 전수받은 생강차 맛있게 만드는 비법 소개해 본다.

작년에는 생강작황이 좋지 않아 비쌌는데 올해는 생강이 매우 저렴하다. kg당 1만 원이면 최상의 국내산 생강을 구입할 수 있다. 생강은 미리 물에 불려 놓으면 껍질 벗기가 쉬운데 양파망에 넣고 빨래하듯 치대면 부딪치면서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 그래도 안 벗겨진 부분은 칼로 살살 긁어내면 된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물을 붓고 믹서기에 간 후 배보자기에 넣어 물을 꼭 짜준다. 이때 건더기는 버리지 말고 소주나 청주를 부어주면 고기요리에 활용도가 높은 생강술이 된다. 생강즙과 같은 양의 설탕을 넣고 팔팔 끓여 주면 되는데 설탕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거나 변질될 수 있으니 꼭 지켜도록 하자. 여기서 또 다른 꿀팁은 레몬즙을 조금 넣어주면 풍미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다. 불 위에 한 시간 지키고 서서 졸이는 게 좀 번거롭지만 채 썰어서 그냥 설탕에 졸이는 방법보다 훨씬 깔끔한 진액의 생강차를 만들 수 있다. 너무 졸이면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굳어서 딱딱해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점성이 생겨 걸쭉해지면 불을 끄도록 하자. 식힌 후 병에 담기 전에 꿀을 섞어서 보관하면 훨씬 더 맛있는 생강차가 된다. 생강차를 담는 유리병은 반드시 열탕소독해야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는다. 리본을 하나 묶으면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기도 딱이다.

병에 담고 난 뒤 냄비에 묻은 찌든한 찜을 씻을 겸 물을 부어 마셨더니 맵고 향긋한 생강향과 함께 금세 열이 홀 올라온다. 감기 걸리면 코로나19와 헷갈려 더욱 곤란해지는 올해 겨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알싸한 생강차로 건강하게 나보자.

서순옥 객원기자



## 겨울왕국, 그리고 송해공원 빙벽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대구 대표 관광지인 옥언지 송해공원이 아름답고 웅장한 장관을 선사한다.

달성군은 추운 겨울, 송해공원에 불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옥언지 북편 절벽에 빙벽을 조성하고 야간 경관 조명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연장 200m에 높이 15m의 절벽에 만든 빙벽은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에 영화 속 겨울왕국 같은 웅장하고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하얗게 얼린 빙벽 위에 다채로운 불빛을 비추주는 조명을 추가적으로 정비 및 보강 설치해 야간에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선보이며 추운 겨울 송해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오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차갑지만 따뜻한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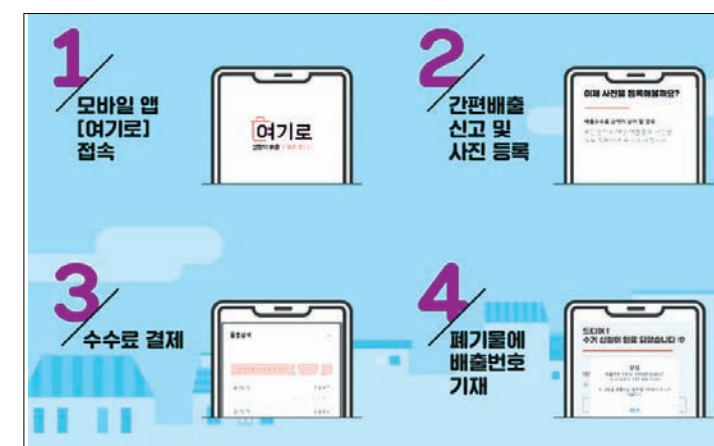
## 대형 폐기물, 이제 간편히 버리세요~

스티커 필요 없이 간편한 앱으로 처리 가능해져

부피가 큰 폐기물을 버리려  
면 스티커를 따로 구입해 부  
착한 뒤 밖에다 내놓았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  
아도 될 전망이다. 폐기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스티커  
가격도 다양해 무엇을 붙여야  
할지부터가 사실 난관이었다.  
게다가 스티커 구입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지정 판매소  
에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않더  
라도 인터넷에서 결제 후 출  
력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심지어 스티커를 붙  
여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  
군가 떼어가거나 비에 젖어  
훼손되어 다시 구입을 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달서구에서는 ‘대형폐기  
물 간편 처리를 위한 모바일  
앱’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 애플리케  
이션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로, 서비스를 도입한 타 지역  
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  
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여기  
로’라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24시간 언제든  
지 폐기물 처리 접수가 가능  
하다. 전문 업체가 아닌 이상  
일회성 사용이 많은 점을 고  
려해 로그인 없이 신청자 이  
름과 연락처, 주소를 입력하  
면 되고 사용방법 또한 간단  
하다.

세부적인 사용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리 다  
운로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 ‘여기로’에 접속한다. 그  
후 폐기물 사진을 찍어 등록  
하면 수수료 결제창이 나온  
다. 결제 후 안내받은 배출 번  
호를 폐기물에 적어 지정하  
위치로 내놓기만 하면 끝 이



후에는 구청에서 나와 배출  
번호를 확인 후 수거를 해가  
고 이용자는 수거완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대형 폐기물  
간편 처리 시스템은 스티커를  
직접 구입해 부착해야 하는  
주민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티커 제

작 예산이나 판매 인력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코로나19가 다시 고  
개를 들고 있는 요즘, 비대면  
접수를 통해 공무원부터 주민  
까지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청소과 재  
활용품 ☎ 667-2725

이원욱 객원기자

## 건강칼럼



보생조현의원 원장 조현 정



### 겨울철 낙상 주의

날이 추워지면 낙상환자들이 많아진다. 영하의 온도가 지속되면서 그늘진 곳에는 얼어  
붙은 곳이 생기고 있어 빙판길 낙상사고가 늘어난다. 겨울이 되면 추위에 몸이 움츠러 들  
고 관절이 뻣뻣해져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높다. 빙판길 뿐 아니라 침대나 화장  
실 등에서도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또는 척추의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보행제한뿐 아니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시간 누워 치료를 받게 되면서 뇌졸중, 혈전, 욕창, 폐렴 등 합병증  
이 일어나기 쉽고 또한 회복된 후에도 보행 제한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  
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감각과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과 함께 근육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근력운동을 무  
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면 좋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스쿼트), 제자리  
걷기(가능한 무릎을 90°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좋다), 발뒤꿈치 들고 버티기, 한발 들고  
한발로 서기, 누워서 엉덩이 들어올리기(힙브릿지), 누워서 허리를 고정하고 다리를 번갈  
아가며 들어올리기 등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운동을 10~30초간 좌우 반복해준다.

또한 실내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전선이나 옷 등을 정리해야한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매트를 깔고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평소 어지러움이 있다면 복용하는 약물이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지 복약  
상담을 하고 어지러움을 치료해야 한다. 안과검사를 통해 시력을 교정하고 과음을 피하  
야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근력약화로 인해 통  
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2016년 기준 낙상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약 27만  
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5.7%를 차지한다. 65세 이상에서 30%는 매년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나 폐경기 여성의 경우 뼈의 강도가 약  
해져 낙상이 골절이나 척추압박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구시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현의원 ☎053-564-0401

## 업그레이드된 걷기 해보세요

운동효과는 높이고 부상 위험은 줄인 ‘노르딕 워킹’

걷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단순히 보이지만 사람이 한발  
내딛기 위해서는 전신 근육을 움직여야만 가능하므로 운동효과  
도 크다. 신체 나이에 따라 알맞은 걷기도 다른데 특히 노년층에  
추천할 만한 걷기가 바로 ‘노르딕 워킹’이다. 핀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노르딕 워킹은 원래 북유럽 스키 선수들이 모여 눈이 없  
는 때에도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생각하다 고안한 운동으로 이  
름에도 그래서 북유럽 지역을 일컫는 노르딕이 붙여졌다.

일반적인 걷기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인데 한 연구결  
과에 따르면 운동효과를 측정했을 때, 노르딕 워킹의 경우 일반적  
인 걷기보다 약 1.4배로 높게 나왔다고 한다. 그 비결은 바로 전용  
스틱에 있다. 스틱을 다리와 함께 앞뒤로 계속 움직여 걷기 때문  
에 상체도 운동이 되고 가슴을 활짝 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게  
다가 양손에 전용 스틱을 잡고 땅을 짚기 때문에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어 무릎이 약하여 걷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좋다.

다른 운동도 그렇듯이 노르딕 워킹도 올바른 방법이 있어 이  
에 맞춰 운동할 때 부상을 방지하고 더 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 먼저 스틱과 뒤쪽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뒤쪽에 짚는 스  
틱의 각도를 조절하는데 이때 바다과의 각도는 60도로 유지시키  
는 게 좋다. 또한 척추를 곧게 세우고 팔은 최대한 길게 뻗어 팔  
꿈치가 구부러짐이 없는 자세가 알맞으며 스틱이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명치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실내 운동이 부담스러운 요즘, 노르딕 워킹은 숲  
길과 같은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할 수 있으면서 동  
시에 관절이나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몇 안 되는 운동 중에  
하나이다. 더군다나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이 있거나 스트레스  
가 많은 직장인도 걸으면서 나오는 엔도르핀 호르몬 덕분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르딕 워킹이 최근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이원욱 객원기자




12월 28일 ~ 1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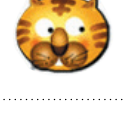
재미로 보는 운세




36년생 손해 볼 일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 받기만 하면 된다. 48년생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서둘러야 좋은 성과를 얻는다. 60년생 다소 경제적인 손실은 있지만 명예를 얻게 되는 운이다. 72년생 남을 도울 때에는 조건 없이 도와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84년생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96년생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라.




37년생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해야 한다. 49년생 누군가와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긴다. 61년생 어려운 일을 피하고 사람들과 화합한다. 73년생 뒷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된다. 85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 97년생 좋은 일을 널리 알리는 것은 바른 일이다.




38년생 멀리 내다보고 큰 것을 바랄 때 원하는 것을 이룬다. 50년생 공동투자를 하거나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62년생 험한 일을 스스로 피해가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겨워한다. 74년생 뒷사람이 벌인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되니 바쁜 시기이다. 86년생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행운이 찾아온다. 움직여야 한다. 98년생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39년생 되도록 큰물에서 놀아야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51년생 좋고 나쁜 것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63년생 부정한 행동을 하면 일이 꼬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 75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모두가 즐거울 수 있다. 87년생 이성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구설수를 조심하라.




40년생 무엇을 하든지 뒷날을 생각하고 해야 한다. 52년생 자존심을 조금만 버리면 일이 잘 풀린다. 64년생 아랫사람에게 친절하면 도움을 받게 된다. 76년생 일이 잘 풀리니 편안하게 지내게 된다. 88년생 너무 열심히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1년생 자녀의 일이 잘 풀리니, 기쁨이 화합하게 된다. 53년생 지성이면 감천이니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65년생 부당한 방법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드니 주의하라. 77년생 충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좋은 일이 생긴다. 89년생 삶에 여유가 생기니 잠시 쉴 시간이 생긴다.




42년생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도움을 준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부탁하라. 54년생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라.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손길을 내어준다. 66년생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니 침착해야 한다. 78년생 말소심을 해야 한다. 주의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린다. 90년생 약간의 이익을 얻으려고 명분을 버리면 나쁘니 주의해야 한다.




43년생 무리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면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55년생 큰 이익은 없지만 작은 이익은 반드시 찾아오니 노력해야 할 수 있다. 67년생 거창한 계획은 쉽게 무너지게 된다. 눈앞의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79년생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니 어렵지 않다. 91년생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하는 것은 좋지 만 변화를 주게 되면 사기를 당할까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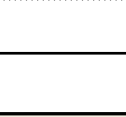
44년생 나중을 위해서 기력을 보충해야 할 시기이니 나서지 말라. 56년생 생활의 여유가 생기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68년생 거래처가 바뀌고 아랫사람과의 교류도 없어질 수 있다. 80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주변의 인심을 얻게 된다. 92년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니 인기가 상승한다.



45년생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당장이 문제가 아니다. 57년생 자존심을 버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재물로 보상을 받게 된다. 69년생 아랫사람들과 친해져야 도움을 받는다. 배푸는 것이 곧 이득이 있다. 81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시기이다. 욕심을 부려도 무방하다. 93년생 작은 일은 이루고 큰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46년생 주변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무 튀면 공격을 당할 수 도 있다. 58년생 일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70년생 실패를 두려워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경험에 많은 만큼 실수도 줄어든다. 82년생 어려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 서두르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생긴다. 94년생 이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성을 멀리하라.




47년생 처신을 잘 해야 하고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소문에 휘둘리면 고생을 하게 된다. 59년생 가까운 사람을 믿어야 고생을 안 한다. 먼 사람의 말은 무시해야 한다. 71년생 급할 때에는 절제를 무시하는 것이 좋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83년생 실수를 했다면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 신경 쓸 겨를이 없다. 95년생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제공 : 당신의 멘토, 운조아(www.unjoa.com)


주간 일기예보

12월 24일 목요일




최저 2℃  
최고 9℃

12월 25일 금요일




최저 -2℃  
최고 6℃

12월 26일 토요일




최저 -3℃  
최고 8℃

12월 27일 일요일




최저 -1℃  
최고 7℃

12월 28일 월요일



최저 1℃  
최고 10℃

12월 29일 화요일



최저 -3℃  
최고 3℃

시시상식

필리버스터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U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퍼즐



제1,004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감삼동) 3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정답자 발표 : 1,152호


1,002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자동차극장 관람권 1매 ☎ 984-8008  
김민철(대구 칠곡중앙대로) / 권여민(대구 성곡 다사울)




미과 SP-LEX  
고품질 휘트니스 클럽 스페셜티스튜디오/영양제/스포츠용품  
이용권 2매 ☎ 593-9990~8  
이승철(대구 성곡 다사울)



네이처파크  
이용권 2매 ☎ 608-5000  
권경택(대구 서구 이곡동) 홍옥순(대구 중구 중앙대로) 김건환(대구 서구 월배로) 서선영(대구 성곡 가창원) 임연미(대구 서구 대명천로) 최민영(대구 서구 선원로) 김정현(대구 서구 용산동) 이연옥(대구 북성로)



휴림원  
이용권 2매 ☎ 585-0100  
박다은(대구 서구 장동)



문화상품권 5천원 1매  
윤경식(대구 서구 이곡동) 최경희(대구 서구 성당동) 김인경(대구 서구 봉곡동) 이미영(대구 연경중학교) 장미진(대구 서구 감삼동)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 <가로열쇠>

- 조선시대의 화제.
-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
- 자계미와 쌀겨로 까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몹시 가난하고 천한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를 이르는 말. 후한서의 '송홍전'에 나오는 말이다.
-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 한 주일. 또는 칠 일. 주문한 물건이 〇〇〇가량 늦게 도착했다.
- 옷의 일정한 곳에 형질을 달거나 옷의 한 부분에 형질을 댄대어 둔,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부분.
- 동력으로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연소 가스를 내뿜는 힘에 의하여 생기는 양력을 이용해 공중으로 떠서 날아다니는 항공기. 우리 일행이 탄 〇〇〇는 지금 대서양 상공을 날고 있다.
- 어떤 일을 하다가 마치지 못한 부분. 오늘 못한 〇〇〇는 내일 하도록 하죠.
- 농촌에서의 비교적 단순한 협동 노동 형식. 내일 이웃집에 〇〇〇하러 간다.
- 눈이나 먼지, 연기 따위가 흩날리는 모양. 먼지가 〇〇 날리는 길을 걷다. 연탄 화력에서 연기가 〇〇 새어 나온다.
- 조선 세종 때의 과학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격루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인물.

-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질풍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
- 폭력이나 매춘 따위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범죄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〇〇〇를 주류잡던 사나이.
- 고양이가 우는 소리.

### <세로열쇠>

-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의 딸. 비보 온담과 결혼해 학문과 무예를 가르쳐 훌륭한 장군이 되게 했다.
- 말하거나 웃을 때에 두 볼에 움푹 들어가는 자국.
- '없다'와 함께 쓰여, 뜻밖이거나 한심해서 기가 막힐 것을 이르는 말. 고만한 일로 화를 내다니 〇〇〇〇가 없다.
- 수돗물을 나오게 하거나 막는 장치.
- 한 번만 쓰고 버리도록 되어 있는 물건.
- 체내에 쫓는 바늘과 약액을 넣어 넣는 피스톤으로 구성된 병원에서 쓰는 기구.
- 먼 데서 일어나는 일을 능히 듣고 보는 귀와 눈. 널리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사물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이른다.
- 프랑스 황제. 1804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 유럽 대륙을 정복했으나 세인트헬레나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재위 기간은 1804~1815년이다.
- 추울 때 소의 등을 덮어 주기 위해 명석처럼 만든 것. 짚으로 네모지게 엮어 짜서 만든다.

### <1,002회 정답>

말	라	쟁	이	정	형	외	과
겉	다	글	틀				
랭	마	을	가	집	박		
이	바	지	시	라	이	벌	
		막	질	리	텍	레	
보		림		우	스	개	
최	우	충	돌	리	아		
단				나	부	랭	이
글	탕	오	로	라	젠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www.prsinmun.co.kr

대표전화: (053) 572-6000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감삼동 3F  
(우편번호: 42640)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등록번호 대구 다01130  
▶간행물 주간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株)  
▶발행인 조경태  
▶편집인 조경태


☎은행계좌안내  
대우은행 002-08-073 862-4  
국민은행 680-24-0070-047  
농협 794-02-235 282  
예금주 : 푸른신문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번에 받으니까 더 놀라운 혜택

현명한 선택 결합 상품

지금바로! (053) 551-2000 www.gcs.co.kr



TV +

이메일

이메일


함께 하는 즐거움

웃음과 감동주는 씨엠씨가족오락대본이

CMC TV

디지털:57 아날로그:37-1

1588-0669 www.cmctv.co.kr



cmc family

